

## 인류문학공유체--인공지능 자연어 모형으로 세계문학을 재창조하다

류방희

경제 경쟁의 배타성에 비해 문학, 문화는 '공유할 수 있다(shareable)'라는 것에 근거해 필자는 일찍이 '언어문화 공유체(one community sharing one language culture)'라는 표현으로 한 민족의 문학을 묘사한 바 있다. 이를테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마스터하면 한글로 만들어진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공유(share)'할 수 있다는 것이 인류문학 공유체(The Shareable Community of Human Literature)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이다.

ChatGPT 등의 출현과 더불어 인공지능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의 발전은 '빅 모델' 시대로 진입했고, 이는 또한 세계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빅 모델 기반 기술 중의 하나는 '자연 언어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빅 모델은 '자연 언어 빅 모델'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 '자연 언어'는 또한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호 도구이다. 또한 빅 모델은 자동으로 '문학 작품'을 생성할 수 있어 '생성 AI'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앞으로 인류 문학의 생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연 언어 모델은 다양한 민족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어 인터넷에 이어 '세계 문학'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으며, 인류 문학의 공유체 구축의 비전이 보다 또렷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미국 회사 OpenAI 가 출시한 ChatGPT 는 자연 언어 빅 모델로서 국제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했지만 그 중 영어 데이터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고 중국어, 한국어 등 다른 민족 언어 데이터는 일부에만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ChatGPT 가 여전히 일종의 '영어 문화 제국주의'를 표징한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중국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는 ChatGPT 를 사용할 때도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 기술인 Transform 과 같은 대규모 AI 모델 기술은 오픈소스에서 공유되며 다른 민족 국가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민족 자연 언어를 기반으로 대규모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중국의 바이두 회사에서 출시한 '문심일언' 빅 모델은 중국어 데이터를 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지금 각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빅 모델을 '착지'시켜 큰 돈을 벌기 위해 바쁘고, 각 민족 자연 언어의 빅 모델에서의 문

화적 역할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학 및 문화 연구자로서 이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의 출현은 세계의 모든 민족 문학 작품을 하나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었지만 '언어'라는 장벽에 직면했다. 그러나 자연 언어의 빅 모델의 출현은 이제 이러한 '언어'장벽들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어 다양한 민족 문학의 더 편리한 교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 문학 공유체를 구축하는데 보다 견고한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AI 빅 모델의 출현 시각을 'ChatGPT 시각'이라고 부르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전의 여러 중요한 단계들을 각각 '개인 컴퓨터 시각', '인터넷 시각'에서 '증기 기관 시각', '자동 인쇄기 시각'으로 명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로 '증기 기관 시각', '자동 인쇄기 시각'에 '세계 문학'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는데 이로써 우리는 현대 기술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AI 대형 모델이 '세계 문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영국 학자 프라워(S. S.Prawer)는 분석에 따르면 괴테가 노년에 "화물의 국제적 교환의 발전이 어떻게 지적과 정신적 교류와 교환에 상응한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세계문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내놓았는데 "이는 민족적 특성을 포기하는 의미인 것은 아니고 이와 반대로 모든 민족의 문학은 그 특수성과 차별성과 세계문학 교향악에 가미된 특수한 음색 때문에 외국 독자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며 "우리 자신의 문학도 이러한 접촉에 의해 어느 정도 그 성격이 변하겠지만 이는 우리 문학을 더욱 풍부히 하고 그로 인한 공생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프라워는 민족의 특징과 특수성을 버리지 않은 공생의 세계문학, 즉 배타성이 없는 '인류문학 공유체'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에 분명 부합했을 것이고 따라서 『공산당 선언』에서도 세계문학이라는 이념을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산당 선언』의 예언이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 세기에 번역, 종이책 보급본, 순회 공연, 라디오, 영화와 텔레비전 등은 마르크스가 놀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적 지평을 변화시켰고 또한 우리는 '민족문학'과 '지역' 문학의 혼합과 세계적인 확산을 보았다." 상상이 풍부한 거대한 박물관이며 위대한 바벨(Babel) 도서관인 '세계문학'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 (중국어판, 『마르크스와 세계문학』 삼련서점 1980 년판, 191-195 쪽) 마르크스가 처한 시대는 '인쇄자본주의' 시대, 프라워는 '전자자본주의' 시대의 상황을 묘사했고 그 이후의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인터넷은 '세계문학'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시켰으며 현재의 AI 자연 언어 모델은 '세계문학'의 '착지'를 위해 더

탄탄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해 '놀라'는 대신 매우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된 '세계문학'이 예상보다 더 맹렬히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공산당 선언』의 관련 논술을 보자. "부르주아 계급이 이미 세계 시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생산과 소비는 이제 세계적인 것으로 전락되었다." "물질 생산도 그렇고 정신 생산도 마찬가지이다. 각 민족의 정신 활동의 성과는 이미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민족의 일방성과 편협성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여러 민족과 지방의 문학에 의해 세계문학이 형성되었다. 연결시켜 보자면 '세계문학'은 '각 민족의 정신 활동의 성과'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기에 일종의 공유적인 정신 또는 문화 공동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는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자신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자산가는 또한 '자신의 이미지'를 토대로 자신을 위한 '문학세계'를 창조해낸다. 부르주아 계급은 예전에 존경받던 직업의 장엄한 광채를 모두 지워버리고 의사, 변호사, 목사, 시인과 학자를 그들의 하인으로 고용한다. (중국어 제 1 판 『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제 4 권, 469-470 쪽) 시인은 부르주아 계급에 고용되어 그들의 하인이 되고 시 등으로 구성된 '문학세계'는 부르주아 계급이 돈을 버는 영역으로 전락된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민족문학 간의 충돌만을 바라볼 때 각 민족 문학과 이러한 민족 문학들로 구성된 세계문학과 자본 증식 논리의 기본적 충돌은 소홀하게 된다. 세계문학이 '각 민족의 정신활동의 성과'로서 각 민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유성이 강하다면 자본의 경제 논리로서의 배타성은 바로 이러한 공유성과 첨예하게 충돌하게 될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인류의 미래 공동체에 대해 묘사한 부분도 있는데 "각종 계급과 계급 대립이 존재하는 부르주아 구사회를 대체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 발전을 모든 사람의 자유 발전의 조건으로 하는 연합체"(위의 책, 491 쪽)이며, 자본주의의 배타적인 '화폐 공동체'에 비해 이러한 연합체의 중요한 특성은 바로 보편적인 '공유성'에 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는 "개인의 진정한 정신적 부는 전적으로 그의 현실적 관계의 부에 달려 있다"며 "그 이유만으로 개인은 여러 가지 민족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세계 전체의 생산(정신적 생산도 포함)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전 세계의 이러한 전면적인 생산(사람들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어 제 1 판 『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제 3 권, 42 쪽) '세계문학'은 '전세계'의 '정신적 생산'의 산물이고, 이러한 생산은 '전면성'을 갖게 되며 필연

적으로 여러 '개성'들의 완전한 발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한 민족 국가 내에서는 각 개인의 '개성'의 완전한 발전을 가리키며 '글로벌' 범위 내에서는 각 '민족'의 '개성'이 충분히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각 개인의 자유 발전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의 연합체로 보는 시각은 필연적으로 각 '민족'의 자유 발전을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의 연합체로 보는 시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상품교환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나의 수요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 나의 자연적 개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중국어 제 1 판, 『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제 46 권 상권, 제 198 쪽), 대공업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관계를 모두 없애고 원래의 관계를 금전적인 관계로 변화시켰"으며 "사유제의 통치하에서 이러한 생산력은 다만 부분적인 발전만을 얻었다". "대공업은 세계 각지의 사회 각 계급 간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관계를 형성시켜 각 민족의 특수성을 없앴다"(『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제 3 권, 제 68 쪽) 이런 특수성은 바로 생산과정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관계 속'의 각 민족의 '자연적인 개성'인데 특히 세계 각 민족의 '자연 언어' 및 그 언어들로 이루어진 문학이 이러한 '자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각 민족이 형성한 '일면성과 편협성'과는 분명히 다르다. 자본의 글로벌 확장은 세계 문화 정신의 '생산력'도 서구 민족의 '특수성'을 지닌 언어 문학이 강력한 위치에 있는 등 '부분적인' 발전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마르크스의 인류의 정신적 생산력도 '전면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르면 '특수성' 또는 '자연적 개성'을 지니는 세계의 모든 민족 언어 문학도 마땅히 비슷하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사상가 훔볼트는 자연 언어 체계를 민족의 독특한 '세계관' 또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구축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세계의 무한함과 풍부함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다양성을 요구하므로 인류 언어 문학의 다양성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세계 각 민족 문학의 공생 발전의 이론적 근거이다.

오늘날 인간의 인식에는 많은 차이, 지어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시에 인류문화생태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초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것은 전 인류의 정신적 생산력 발전의 '전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비록 자본의 기본적인 경제논리와 그 글

로벌 확장이 이러한 다양성, 전면성과 상충되지만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의 황금 '미학적 속성' 관점은 이 문제를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속은 '사용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금과 은의 '질적 동일성'은 금으로 '단순한 수량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 화폐 "교환 가치"도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적인 미학적 속성'도 지니고 있다. (중국어 제 1 판, 『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제 46 권 하권, 459 쪽) 황금은 특히 최강의 색상인 빨간색을 전문적으로 반영하는데 색채에 대한 감각은 일반적인 미적 감각에서 가장 대중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엔겔스 전집』 제 46 권 상권, 145 쪽) 황금이 인간의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미학적 속성'은 '사용 가치'의 범주에 속하며, 그 '질적 동일성', 즉 '동질화' 특성은 화폐의 '교환 가치'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는 '미학적 속성'을 지닌 문학 작품과 그 화폐 가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마르크스는 리카도가 "노동은 사용 가치뿐만 아니라 교환 가치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리카도 자신마저도 이중 표현을 가진 노동의 이중 특성을 구별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차이'를 밝힌 것은 마르크스의 중대한 이론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예술 미학 이론의 일반적인 문제는 리카도와 같이 문예 작품 자체의 '사용 가치'로서의 '미학적 속성'과 '교환 가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능숙하지 않으며 특히 자본의 프레임에서 화폐 교환 가치 논리는 문예의 미학적 속성을 억제하지만 이러한 미학적 속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라워의 『마르크스와 세계문학』(423-424 쪽)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와 정신 생산에 관한 논제를 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이렇게 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자유로운 정신 생산'을 구분하는 것은 예술이 비록 의기가 투합하지 않는 사회질서의 제한을 받더라도 예술이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한다". 문예작품에 포함된 '이데올로기'는 물론 '경제적 기초'에 의해 결정되지만, 문예는 '자유로운 정신 생산'과 그 '미학적 속성'으로서 '경제적 기초'에 의해 완전히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의 논리가 문예를 상품화시켜 문예로 하여금 교환가치를 갖게 하더라도, 그 '사용가치'로서의 '미학적 속성'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결코 소위 '경제결정론자'가 아니다!

소위 '미학적 속성' 또는 '미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칸트는 '공통감'을 사용하여 미적 감각의 '공유성'을 묘사했다. 미적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미적 활동으로서의 '세계문학'은 필연적으로 '다양성'과 '공유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미적 논리를 고립화·유토피아화시켜 다른 문명을 동질화시키고 배타하는 자본 논리가 미적 다양성과 공유성을 억제하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가치에 관한 미적 논리와 교환가치에 관한 자본 논리 사이의 '차이'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문학·인문 연구자들은 반드시 헌팅턴이 부추기는 '문명의 충돌'론의 잘못된 관점과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연언어'에 기반하여 '자연적 개성'을 지니게 된 다양한 민족 문학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류 문학의 공유체와 세계 문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자신의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AI '자연 언어'의 빅 모델은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인문학자들은 오늘날 세계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직접 '해결'할 수 없겠지만 빅 모델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학 교류를 확대하며 인문학적 공유체 건설을 촉진한다면 적어도 일정한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